

조센징에게 그러지마

## 독립운동의 힘, 알고보니 민주주의였네

한겨레신문 2017-08-15

광복절 되새기는 책들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806714.html>

김정인 교수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

임시정부 대의제, 정당 활동에 착안

민족주의 시각 넘어 새로운 조명

아카하타신문 펴낸 '우리는 가해자...'

헌병대 극비자료 '조센징에게 그러지마'

일제 만행·조선인 차별 실태 담겨

민족주의가 아닌 민주주의의 시각으로 독립운동사를 쓴 책 등 광복과 독립운동의 의미를 새롭게 새기는 책들이 광복 72돌을 맞아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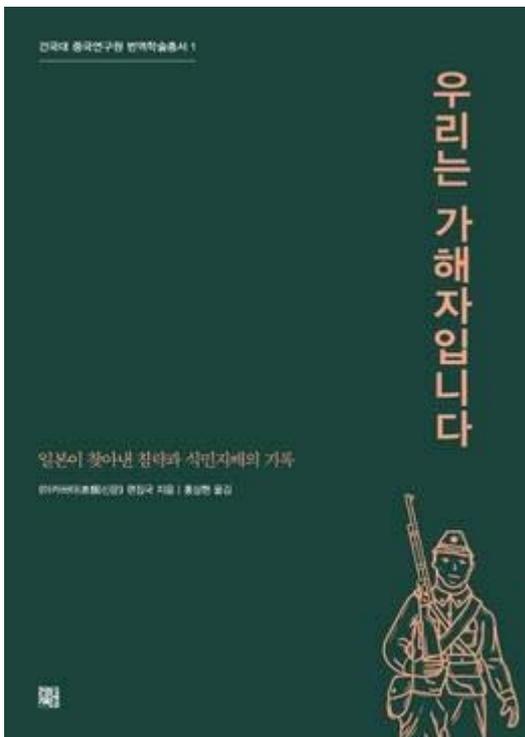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책과함께)는 그동안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국 현대사를 다시 써 온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사회과교육과)의 노작이다. 지은이는 19세기부터 1919년 3·1운동까지의 역사를 민주주의의 시각으로 다룬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2015)를 펴낸 바 있는데, 이번 책은 그 이후인 3·1운동부터 1945년 해방 직후까지의 역사를 다뤘다. 앞으로 1948년부터 오늘날까지의 역사를 다룬 책을 펴내면 '민주주의의 역사' 3부작이 완성될 예정이다.

한국 현대사는 민족주의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근원적 동력으로 삼아왔다는 것이 지은이의 기

본 시각이다. “민족주의 시각으로 독립운동을 바라보는 데 익숙한 터에 독립운동은 곧 민주주의 운동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면서 비로소 근대 민주주의 역사에 눈뜰 수 있었다”고 한다. 책은 3·1운동 이후 임시정부 수립 움직임 속에 ‘민주공화국’ 이념이 있었다는 점에 눈길을 준다. 상하이 임시정부가 임시헌장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대의제 기구인)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한다”고 밝히는 등 대의제 형식에 충실하려 노력했으며, 각 독립운동 세력들이 정당을 중심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새롭다.

무엇보다 민족주의, 사회주의, 아나키즘 등 기존 독립운동 사조들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새롭게 조명한 대목이 흥미롭다. “3·1운동에서 민족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적 논리는 민주주의”였고, “집합적 주체로서 민족의 자치를 표방하는 민주주의를 집약한 개념이 민족자결주의”였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동시에 비판하고 ‘삼균주의’(정치·경제·교육의 균등)를 주장했던 조소앙의 ‘신민주주의’ 노선을 높게 평가하기도 한다. 해방 정국에서도 좌익, 우익에 속하지 않은 민족·사회 통합을 표명하는 중도의 신민주주의 ‘들’이 풍성하게 제기됐다고도 분석한다. 다만 “국토와 이념의 분단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좌익과 우익이 서로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면서 ‘분열의 가치’로 작동했다”고 짚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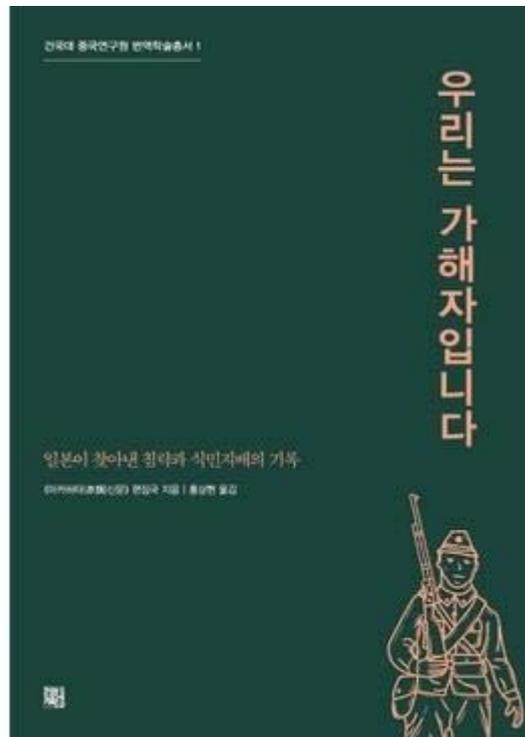
일본 공산당이 발행하는 <아카하타신문> 편집국이 펴낸 <우리는 가해자입니다>(정한책방)는 일본 ‘양심’ 세력이 쓴 과거에 대한 반성문이다. 1928년 창간된 이 신문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식민지에서의 즉각 철군과 조선 독립 투쟁에 연대를 호소하는 등 일본의 제국주의를 줄곧 반대해왔다. 전후 세대인 기자 13명이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발로 뛰며 일본의 침략 역사를 취재한 특집 기사를 책으로 엮었다. 2015년 아베 신조 총리가, 과거사를 인정하고 사죄했던 ‘무라야마 담화’를 뒤엎은 ‘전후 70년 담화’를 발표한 것이 특집 기사를 내게 된 배경이었다.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씨 인터뷰 등을 통해 일본이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응시한다. <조센징에게 그러지마!>(흐름)는 일제강점기 조선헌병대사령부가 발간한 내부 극비자료다. ‘내선용화’를 하려고 일본인들에게 조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문건이나, 역

설적으로 당시 ‘요보’라는 모욕적인 말로 불리며 진찰을 거부당하거나 급료를 떼이는 등 조선인이 받아야 했던 차별의 온갖 실태들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여보세요’에서 온 ‘요보’란 말은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경멸적으로 부르던 말이다.

황태연 동국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대한제국의 성과에 초점을 맞춘 두 권의 책을 펴냈다. <갑진왜란과 국민전쟁>,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청계)에서 지은이는 ‘갑오왜란’(갑오경장)으로 패망했던 조선이 ‘아관망명’(아관파천)을 통해 대한제국으로 부활했다는 평가를 앞세워,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기틀을 마련했던 혁신적 근대국가”였다고 주장한다. 또 이러한 대한제국의 의미를 폄훼해온 기존의 역사관은 “식민사관이 주입한 자학적 역사관”이라고 비판한다.

이 밖에도 근현대 인물에 대한 전기를 써온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이 ‘마지막 광복군’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의 일대기를 그린 <김준엽 평전>(깊은나무)도 곧 출간될 예정이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mailto:circle@hani.co.kr)



72돌 광복절 기념 책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일제강점기 고발' 번역총서 출간

〈조센징에게 그러지마〉 일본인이 자행한 차별사례 68건 기록 / 〈전라도 교안〉 조선 후기 외교문서로  
천주교사회 관찰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35420>

전북일보 2017년 08월 15일 (화)

문민주 moonming@jjan.kr



“불이 났다는 소리에 서둘러 달려갔지만, 조선인 집이라는 것을 알고 모두 되돌아갔다.”, “조선인은 더럽고 이가 있다며 앉은 자리를 청소하라고 명했다.”, “ ‘조선인은 마늘 냄새가 난다’고 대합실에서 내쫓았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가 번역총서 1권 <구한국 외교문서 법안 전라도 교안>, 2권 <조센징에게 그러지마!>(흐름출판사)를 내놨다.

특히 <조센징에게 그러지마!>는 1933년 4월 조선헌병대사령부가 발간한 극비 자료 <조선 동포에 대한 내지인 반성자록>을 번역한 책이다. 1932년 4월부터 1933년 3월까지 조선 전역에서 조선인을 상대로 일본인이 저지른 차별 사례 68건을 기록하고 있다. 조선인을 향한 일본인의 ‘무례’는 상점과 병원, 영화관, 이발관, 사진관, 음식점, 당구장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자행됐다.

‘혐오’와 ‘차별’은 2017년 현재의 우리에게도 유의미한 주제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벌어지는 조선인에 대한 이유 없는 비하는 현재에도 양상만 바뀌어 자행되는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혐오를 돌이켜 보게 한

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은 한국인을 ‘저열한 민족성’을 지닌 대상으로 낙인찍으면서 그들의 우세함을 입증하려고 했다. 식민지에서 산 많은 이들이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더럽고 믿을 수 없고, 무능한 사람으로 폄하됐다. <조선징에게 그러지마!>는 일반 민중의 삶과 생활 전반에 걸친 차별과 폭력에 대한 수많은 증거를 제시한다.

따라서 <조선 동포에 대한 내지인 반성자록> 머리말에서 ‘차별 없는 융합의 이상향’을 만들자는 조선헌병 대사령관 ‘이와사 로쿠로’ 소장의 말은 공허한 외침이 된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관계에서 ‘사이좋게 잘 지내’라는 말은 그 의도가 어찌 되었든 다분히 폭력적이다.

책 역자인 이정옥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연구교수와 변주승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일제강점기 일본인에게 차별받으며 살다 간 이들의 삶을 이해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며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사례에 걸맞은 사진 자료를 첨부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구한국 외교문서 법안 전라도 교안>은 조선 후기 외교 문서를 통해 한국 천주교회사를 들여다본다. 1969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가 간행한 <구한국 외교문서> 제19·20권 ‘법안’ 중 전라도 교안에 관한 기록을 발췌해 번역했다. 법안은 구한말 우리나라와 프랑스 사이에 오고 간 외교문서를 철한 책이다.

법안의 교안 관련 기록 가운데는 1899년 강경포 교안, 1901년 지도 교안뿐만 아니라 1890년 프랑스인을 구타한 최봉석 등에 대한 처벌 요청 건, 1898년 천주교 입교를 금지한 진산 군수의 책임 추궁 요망 건 등 크고 작은 교안 관련 기록이 수록돼 있다. 이러한 전라도 교안 관련 기록은 1886년부터 대한제국기까지 전라도의 천주교회와 지역 사회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조선인을 겨누는 생생한 차별의 현장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조센징에게 그러지마!'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7313>

새전북 신문 [0호] 2017년 08월 10일 (목) 19:31:04

이종근 기자 [ik7409@sjbnews.com](mailto:ik7409@sjbnews.com)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가 번역총서로 '조센징에게 그러지마!(지은이 조선헌병대사령부 편, 이정욱, 변주승 역, 발행 흐름출판사)'를 펴냈다.

이는 조선헌병대사령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에게 반감을 사는 일본인의 불손한 자료들을 모아 일부 제한된 일본인과 조선인에게 배포하였던 책이다.

책에서 보여주는 일본인들의 '혐오'와 '차별'적 인식은 현재의 한국에도 유의미한 주제다. 모두 68건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던 당시 조선인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자료다.

조선헌병대사령부는 이 책을 극비로 일부 제한된 일본인과 조선인에게 배포했다. 조선인들에게 반감을 산 일본인의 불손한 행위를 자료로 엮어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사 로쿠로는 “‘일본과 조선’은 이미 한 몸이며 동등한 일본 제국의 신민이다. 높으신 천황의 다 같은 백성이기 때문에 조선, 일본을 구분해 칭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언뜻 좋게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철저히 식민지하 지배 계급의 시점에서 ‘체제에 거스르지 않는 조선인’에 한해 선택적으로 서술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책은 이같은 차별을 행하는 일본인이 ‘일부’에 불과할 뿐임을 강조하고, 단지 ‘내선융화’를 방해하는 사례로 교훈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이 책은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상점, 병원, 영화관, 이발관 등은 우리의 삶과 유리될 수 없는 일상적인 공간들이다. 바꿔 말하면, 그 시절의 조선인들이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벌어지는 조선인에 대한 이유 없는 비하는 현재에도 양상만 바뀌어 자행되는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혐오를 돌이켜 보게 한다. ‘혐오’와 ‘차별’은 2017년 현재의 우리에게도 유의미한 주제이다./이종근기자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3423>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가 번역총서 1, 2권을 한데 내놨다.

먼저 1권인 ‘구한국외교문서 법안 전라도 교안’(흐름출판사·25,000원)에서는 조선 후기 외교문서로 들여다보는 한국 천주교회사를 다뤘다.

전라도 교안의 자료는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에서 1969년에 편찬해 간행한 구한국외교문서 제 19, 20권의 법안 중에서 전라도 교안에 관한 기록들을 발췌해 편을 나누고 번역한 것이다.

한국외교사는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등 한국사 여러 분야를 연구할 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교안이란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조약 이후 개화 정책에 따라 서구 열강과 외교 관계를 맺은 후, 교회와 정부, 교인과 비교인 사이에 벌어진 분쟁을 외교적 절충을 통해 해결한 사건 또는 그 기록이다.

따라서 전라도 교안은 표면적으로는 한시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벌어진 외교 분쟁을 다루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한국사와 천주교회사, 천주교와 지역사회의 관계까지 조망할 수 있는 시대 축소판과 같은 나침반이 된다.

책의 역자로는 변주승 전주대 교수를 비롯해 조윤선 한국고전번역원 전문위원, 오항녕 전주대 교수, 김우철 서울역사편찬원 원장, 이상식 우석대 강사, 이선아 전북대 연구원, 문용식 전주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번역 총서 두번째는 ‘조선징에게 그러지마!’(흐름출판사·13,000원)가 있다.

1933년 조선헌병대사령부가 발간한 내부 극비 자료를 번역한 이 책은 특이하게도 일제강점기 조선인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했던 일본인들을 다뤘다.

식민지 조선에서 산 많은 이들이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더럽고 믿을 수 없으며, 무능한 사람으로 폄하된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우월하다고 믿은 일본인들의 만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책의 역자인 이정욱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연구교수와 변주승 전주대 교수이자 한국고전학연구소장은 “일제강점기 일본인에게 차별받으며 살다 간 수많은 조선인의 사례와 사진 자료를 첨부했다”며, “책이 간행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